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 요소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서울시 송파구를 대상으로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Early Childhood's Mothers on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Elements in the Neighborhood - Focused on Songpa-gu, Seoul -

이주림*
Lee, Joo-Lim

구자훈**
Koo, Ja-Ho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erception of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on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compare the recognition of parents who live in APT and multi-family hous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thers in order to survey the level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factors for child-rearing. The result of questionnaire is analyzed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ccording to the result of IPA by housing types,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pedestrian environment, separ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natural environment and playground is required particularly in the multi-family housing area. the mothers need soundproofing of house and management of unwanted facilities in neighborhood in common. In the apartment, improv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ren's library is required. The results of IPA on the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may be important foundation for future strategies for child-rearing environment improvement.

Keywords : Neighborhood Unit, Child-rearing Environment,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주요어 : 근린생활권, 육아환경, 영유아 어머니, 중요도-만족도 분석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OECD 34개국 중 포르투갈, 폴란드 등과 함께 최하위에 속하였으며(OECD, 2014), 2013년 현재는 1.187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합계출산율 0.968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Seoul Statistics, 2014).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문제로는 노동력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 소비위축, 투자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부양비 증가 등 매우 다양하고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Kim, 1998; Lee et al., 2005; Cheon, 2012).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6년과 2010년에 이미 '새로마지플랜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등 두 차례 계획을 수립·집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육아휴직제도, 주거부담 경감, 의료지원,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원 등 사회경제적인 관점의 육아지원에 국한되며, 일상적 육아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린 및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Yoo, Kang & Park, 2014). 특히, 공급자 위주의 연구가 아닌 육아 당사자 관점의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 당사자인 영유아 어머니의 관점에서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단지형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비해 개별적으로 건축되는 다가구·다세대 근린환경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유형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하는 송파구로 설정하였다. 송파구의 영

*정희원(주저자), 단국대학교 강사

**정희원(교신저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Ja-Hoon Koo,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 222 Wangsimni-ro, Seong dong-gu, Seoul 133-791, Korea. E-mail: jhkoo@hanyang.ac.kr

유아는 34,817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영유아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육아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 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접근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육아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에 적합하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 시점인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의 흐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근린차원(neighborhood-level)에서 육아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심층면접과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전문가 심층면접은 육아정책 전문가(국책 연구원) 3인, 도시계획 전문가(5인)을 대상으로 2013년 9월30일부터 2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FGI는 연구의 대상지인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어머니(5인)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6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송파구 거주 영유아 어머니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영유아 어머니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igure 1>은 연구의 흐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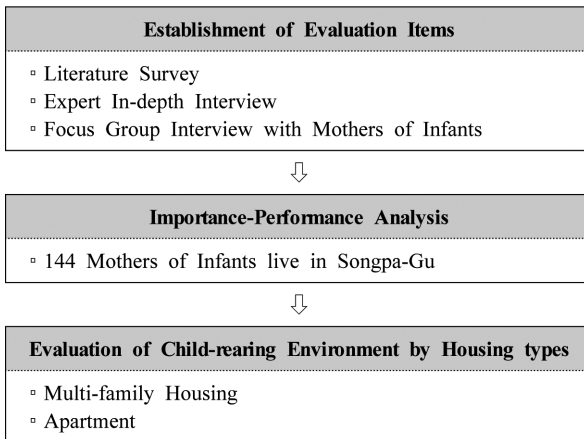


Figure 1. Diagram of Research Process

II. 이론 고찰

1. 중요도-만족도 분석방법 고찰

경영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은 Martilla와 James에 의해 1977년 개발된 서비스 속성 분석방법으로, 최근에는 주거, 도시, 교통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Kim, Koo & Lee, 2013; Koo, Lee & Kim, 2013).

IPA는 크게 평가항목의 설정,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행격자를 작성,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실행격자는 만족도를 x축, 중요도를 y축으로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나눈다.

실행격자 상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유지관리영역에 해당하고,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에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개선 대상영역에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떨어지나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과잉투자영역에 해당한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제4사분면에 과잉 투입되는 재원을 제2사분면에 재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Koo, Lee & Kim, 2013). 여기서 IPA는 상대적 평가에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예를 들어 해당 항목의 만족도가 4점 만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전체 만족도 평균이 4.5라면 이 항목은 중점관리대상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IPA가 상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 2>는 실행격자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다.

Importance	II Concentrate Here	I Keep Up Good Work
	III Low Priority	IV Possible Overkill
	Performance	

Figure 2. Action Grid of IPA

2. 선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건축물 차원의 개선방안이나 실내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린 생활권이나 지역 차원의 육아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거지의 육아환경을 다룬 선행연구는 Hong and Lee (2011), Kwon and Kim(2012), Lee and Koo(2013), Yoo, Kang and Park(2014) 등의 연구가 있다.

Hong and Lee(2011)는 UNICEF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Kwon and Kim(2012)은 육아환경을 자연환경, 가정문화환경, 사회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부산 거주 부모의 인식을 조사·평가하였다.

Lee and Koo(2013)는 물리적 육아환경을 자치구 차원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실증하였다. 이상의 육아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와 직관적인 개선방안 제시라는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 차원의 연구로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공급자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Yoo, Kang, and Park(2014)은 아파트와 기타 주거유형을 나누어 육아환경의 필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Yoo, Kang, and Park(2014)은 평가항목을 내부환경, 외부환경,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

며, 외부환경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이 8개로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류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다 실질적인 육아환경 개선 목적의 정책 수립 시 고려될 수 있는 근린 생활권 단위의 미시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과 지역의 물리적 육아환경을 주택특성, 근린 특성, 입지특성으로 나누었으며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단지특성요소와 입지특성요소로 18개 세부요소를 살펴본아 일상적 육아활동 공간이 되는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육아환경에 대한 여건이 확연히 다른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평가항목 설정

1. 1차 평가항목 및 세부 측정항목

육아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주거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평가항목 리스트를 만들고, 전문가 심층면접과 영유아 어머니 그룹 인터뷰를 통해 육아환경 평가에 사용할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보행

환경, 자연환경, 보육시설, 대형마트, 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항목을 다루었으며, 도시계획 전문가는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 상 주택의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육아정책 전문가의 경우, 영유아 플라자,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에서는 유흥업소, 모텔과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물리적 육아환경은 세부적으로 주택환경, 단지환경, 입지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택특성은 사적 영역으로 도시계획적 함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을 이해하고, 주택공급과 관련한 공공의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근린특성에 대한 부분은 단지특성과 입지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지특성은 공간 특성에 따라 주택과 가장 근접하여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특성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다가구·다세대의 경우는 현 거주 주택의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입지에 따라 육아여건은 달라질 수 있다. 입지특성 항목은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valuation Items

	Index	Description	Code**
Housing Characteristics (H)	Area	Area of house	h1
	Number of Rooms	Including children's room	h2
	Lighting	Lighting of house	h3
	Ventilation	Ventilation of house	h4
	Insulation	Temperature control, Condensation preventing	h5
	Soundproofing	Discomfort caused by surrounding noise	h6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N)	Pedestrian Environment	Sidewalk width, Pavement condition	n1
	Separ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Separation from cars for the safety of pedestrians	n2
	Natural Environment	Planting and waterscape facilities	n3
	Playground	Playground in the APT complex or near the house	n4
	Parking Lot	Condition of parking lots	n5
	Store	Stores in APT complex or near house	n6
	Community Facilities	Community facilities in APT complex or near house	n7
	Program for Community	Program in the community facilities	n8
	Childcare Facilities	Childcare facilities in APT complex or near house	n9
Location Characteristics (L)	Hospital	Distance from hospital	l1
	Workplace	Distance from workplace	l2
	Public Transportation	Bus station, subway station	l3
	Park	Distance from park which parents spent some time with their children	l4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Department store, large discount store	l5
	Cultural Center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l6
	Children's Library	Able to read and lend books for children	l7
	Plaza for Infants and Toddlers	Rent toys for children, offer some place to	l8
	Unwanted Facilities	Bar, hotel(motel), nightclub	l9
	Grandparents' House*	Distance from grandparents' house	l10

*Eliminated by reliability analysis

**A_ for APT, M_ for Multi-family Housing

IV. IPA분석을 이용한 서비스 질 분석

1. 거주자 설문조사

송파구에 거주하며 영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144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선정된 평가항목에 따라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35.4세이며, 평균 자녀수는 1.69명, 막내 자녀의 평균 연령은 2.69세였다. 가구소득은 450만원 이상이 34.7%, 300만원이상 350만원 미만인 1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전업주부는 90명(62.5%), 취업모는 53명(36.8%)이었으며, 자녀를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는 48명(33.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는 96명(66.7%)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51명(35.4%)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93명(64.6%)은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육아환경의 공간범위에 따라 물리적 육아환경이 되는 주택특성, 근린특성, 입지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위한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중요도 변수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Cronhach's Alpha)이 0.950로 매우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집과의 거리에 대한 항목을 제거하여 크론바하 알파값을 0.952로 높였다. 만족도 변수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 역시 0.925로 매우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택과의 거리에 대한 항목을 제거하여 크론바하 알파값을 0.927로 높였다.

주택유형을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택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 차이검정결과, 주택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주택유형별 중요도-만족도 비교 분석

1) 대분류 특성요소 분석

대분류의 육아환경에 대해 주택유형간 비교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모두를 포함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유형의 개선우선순위를 전체 주택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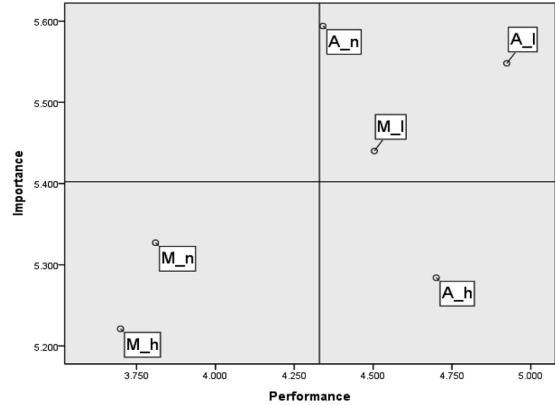


Figure 3. Action Grid of Large Classification for APT and Multi-family Housing

분석결과, 2사분면에 속하는 항목은 없으며, 1사분면(현상유지)에 아파트의 근린특성요소, 입지특성요소, 다가구·다세대의 입지특성요소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주택특성은 4사분면에 속하여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근린특성요소와 주택특성요소는 3사분면에 속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석되는 부분이지만 본 분석에서는 모든 주택을 고려한 것으로 주택유형에 따른 분석과 해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세분류 특성요소 분석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세분류 항목별로 주택특성요소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사분면에 속하여 육아환경 관련 정책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로는 다가구·다세대의 단열, 통풍, 채광, 방음 등의 주택 특성요소와 아파트의 보육시설, 다가구·다세대의 놀이터, 보행환경, 보차분리, 자연환경, 보육시설 등의 근린특성요소, 다가구·다세대의 기피시설과 같은 입지특성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Figure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아파트 단지에 비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행환

Table 2. Multivariate Tests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Partial Eta Squared
Intercept	Pillai's Trace	.973	179.311a	24.0	119.0	.000	.973
	Wilks' Lambda	.027	179.311a	24.0	119.0	.000	.973
	Hotelling's Trace	36.164	179.311a	24.0	119.0	.000	.973
	Roy's Largest Root	36.164	179.311a	24.0	119.0	.000	.973
Housing Types	Pillai's Trace	.365	2.853a	24.0	119.0	.000	.365
	Wilks' Lambda	.635	2.853a	24.0	119.0	.000	.365
	Hotelling's Trace	.575	2.853a	24.0	119.0	.000	.365
	Roy's Largest Root	.575	2.853a	24.0	119.0	.000	.365

a. Exact statistic

b. Design: Intercept+Housing Types 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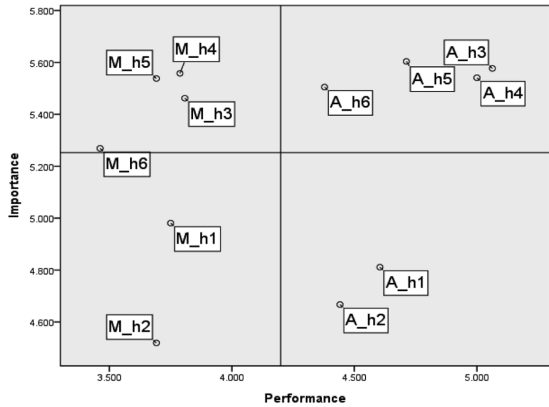


Figure 4. Action Grid of Housing Characteristics for APT and Multi-family Housing

경, 보차분리, 녹지 및 가로식재, 놀이터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보다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술집, 유흥업소 등과 같은 기피시설과의 분리와 관리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집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영유아 어머니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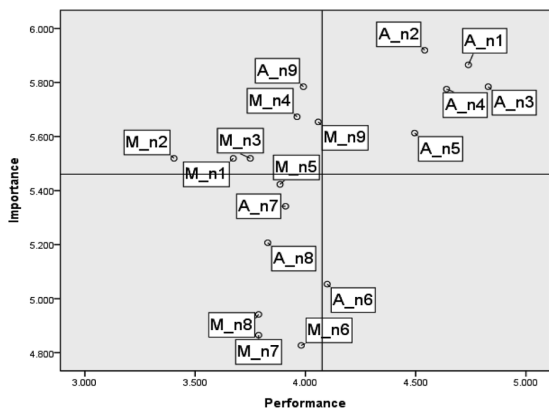


Figure 5. Action Grid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for APT and Multi-family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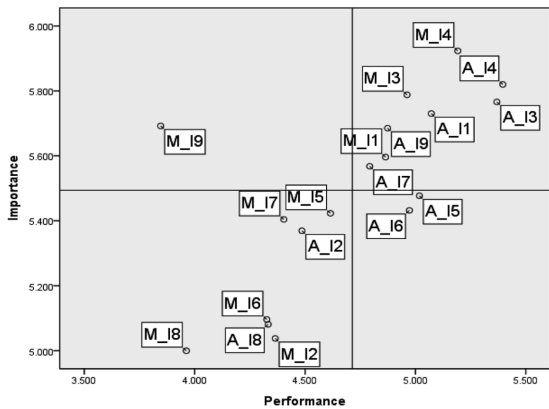


Figure 6. Action Grid of Location Characteristics for APT and Multi-family Housing

이에 커뮤니티 시설 내 민간어린이집 공급,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아파트 거주 영유아 어머니의 IPA

1) 대분류 항목 IPA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IPA 분석 결과, 입지특성은 IPA격자망의 제1사분면에 속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거주 영유아 어머니들이 입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주택특성으로서 중요도는 낮은 반면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IPA격자망의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으로 정책 수립 시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대분류 항목 중 제2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단지(근린)특성이다. 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어머니들이 단지(근린)특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파트 단지 계획 시 육아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지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구체적인 결과는 <Figure 7>와 같다.

이를 제4사분면에 속한 주택특성과 함께 해석하면 주택에 투입되는 비용이 단지(근린)에 투입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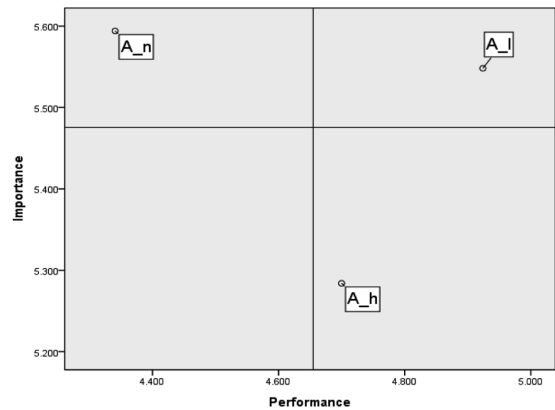


Figure 7. Action Grid of Large Classification for APT

2) 세분류 항목 IPA 결과

<Figure 8>과 같이 세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제1사분면에 속한 채광, 통풍, 단열 항목이다. 채광과 통풍은 중요한 항목으로 만족도 역시 높게 나와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면 된다. 단열에 대한 부분 제1사분면에 속하기는 하나 만족도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어서 계획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주택의 면적과 방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FGI시 주택이 면적은 아이의 활동과 독립적인 공간확보를 위한 방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

방음(중요도 5.505, 만족도 4.378)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방수는 2개 이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은 확보되었다고 보이며, 방수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 4.667, 4.441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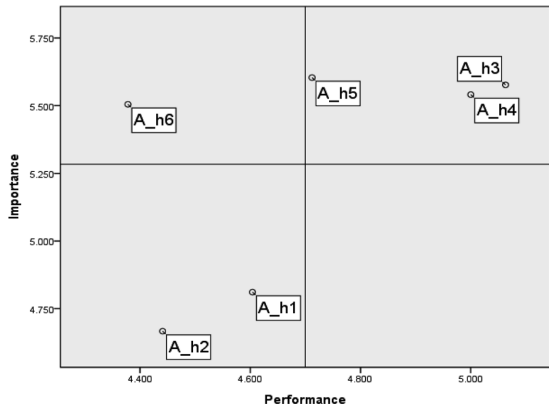


Figure 8. Action Grid of Housing Characteristics for APT

아파트 거주 어머니들은 보차분리, 보행환경, 놀이터, 식재, 주차여건 등에 대해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20명이하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어머니들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결과는 <Figure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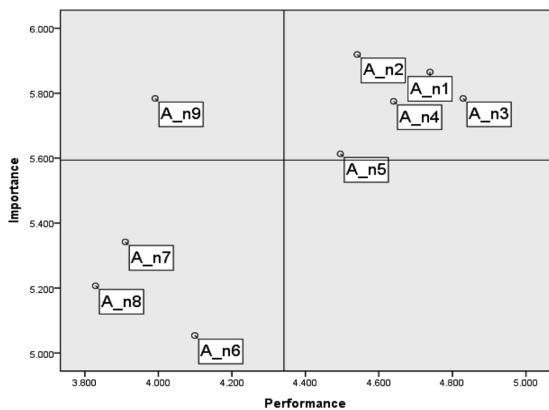


Figure 9. Action Grid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for APT

아파트의 입지에 대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술집, 유흥업소 등 기피시설과의 이격(중요도 5.685, 만족도 4.874)과 어린이도서관과의 근접(중요도 5.568, 만족도 4.793)에 대해 중요하나 만족도는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은 중요도 만족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는 있으나 과도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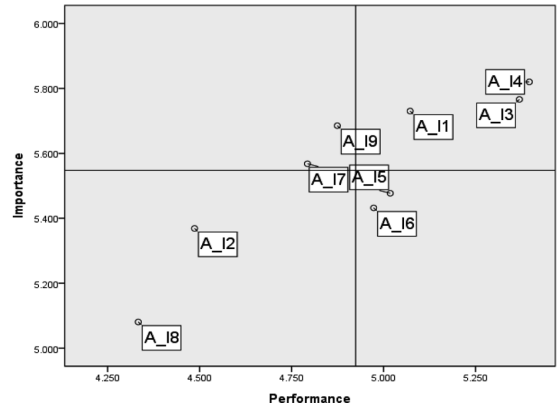


Figure 10. Action Grid of Location Characteristics for APT

4. 다가구 · 다세대 밀집지역 거주 영유아 어머니의 IPA

1) 대분류 항목 IPA 결과

<Figure 11>는 다가구 ·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IPA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지특성요소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주택특성으로서 중요도는 낮은 반면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분류 항목 중 제2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입지특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근린특성요소의 중요도가 평균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근린특성요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아파트 거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다가구 · 다세대 거주 영유아 어머니는 근린특성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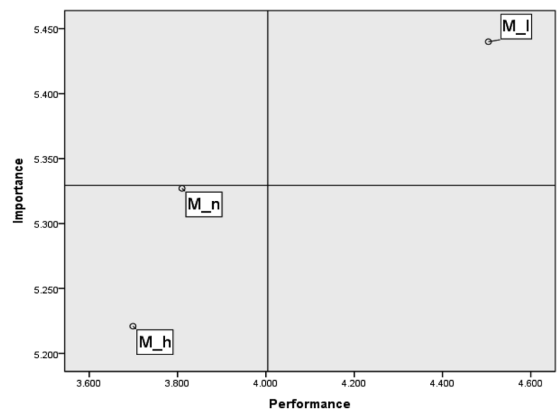


Figure 11. Action Grid of Large Classification for Multi-family Housing

2) 세분류 항목 IPA 결과

주택특성요소에 대해서는 <Figure 12>와 같이 방음(중요도 5.269, 만족도 3.467)과 단열(중요도 5.538, 만족도 3.692)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방음에 대한 문제는 층간소음 뿐 아니라 인접 주택의 소음도 문제인 것을 설문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신혼부부, 영

유아 부모를 위한 다가구매입입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개
보수 시 단열과 방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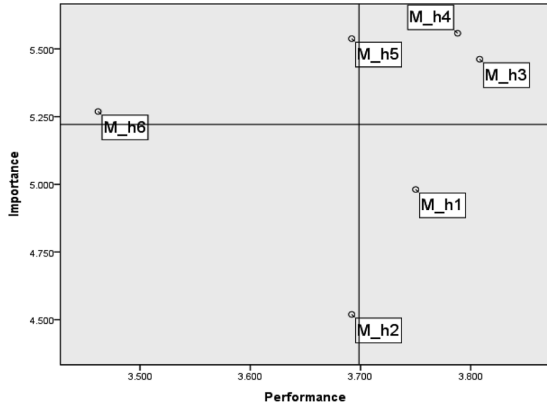


Figure 12. Action Grid of Housing Characteristics for Multi-family Housing

<Figur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린특성요소는 보차
분리, 보행환경, 자연환경요소가 중요하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이다. 이는 아파트와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
적으로는 보행 안전을 고려한 보차분리, 보도폭과 포장
등의 보행환경, 녹지와 식재 등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터는 1사분면(현상유지영
역)에 속하나 아파트 단지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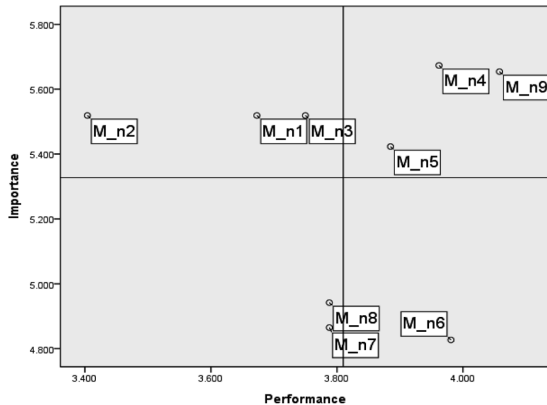


Figure 13. Action Grid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for Multi-family Housing

<Figure 14>은 입지특성에 대해 보여준다. 여기서 술집,
유흥업소 등과 같은 기피시설과의 이격(중요도 5.692, 만
족도 3.846)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구·다세대 주택의 특성 상 아파트보다 기피시설에 영
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충분한 이격이 필요하며, 지구단
위계획 등 계획 수법을 이용한 관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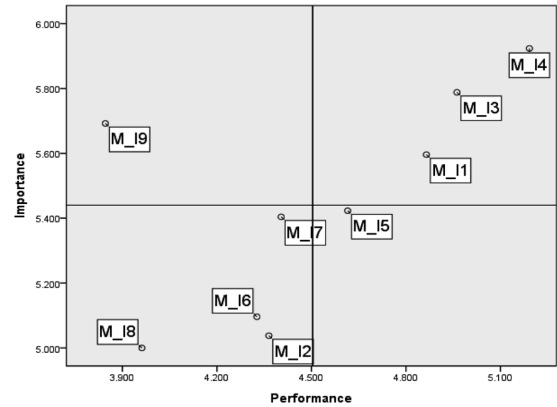


Figure 14. Action Grid of Location Characteristics for Multi-family Housing

5. 세분류 항목의 IPA 결과 종합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육아환경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방음과 기피시설과의 이격에 대한 요소가 공통
적으로 중점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아파트는 어
린이 도서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다가
구·다세대의 경우 단열, 보행환경, 보차분리, 자연환경에
대한 중점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IPA 결과는 다
음 <Table 3>와 같다.

V. 결 론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현실점에서 육아당사자인 영유아 부모의 인식은 중요
하다. 특히 육아에 주도적인 영유아 어머니의 인식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환경 관
련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택을 포함한 근린의 육아환경에 대
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한 자원의 효율
적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과 집중에 대한 논의에 있
어 객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찾아 집중 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유형별
IPA 결과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행환경,
보차분리, 녹지 및 가로식재, 놀이터에 대한 시급한 개선
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Yoo, Kang, and Park(2014)는 아파트 보다는 아
파트 외 주거지에서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제고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근린의 물
리적 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가
구·다세대 주택 지역의 육아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주
거환경 개선에 있어 육아환경을 고려한 대책과 구체적인

Table 3. Total Score of IPA

Items	APT				Multi-family Housing			
	Importance (Ranking)	Performance (Ranking)	Emphasis Improvement	Need Improvement	Importance (Ranking)	Performance (Ranking)	Emphasis Improvement	Need Improvement
Housing Characteristics	Area	4.811(23)	4.604(14)		O	4.981(20)	3.750(19)	
	Number of Rooms	4.667(24)	4.441(18)		O	4.519(24)	3.692(21)	O
	Lighting	5.577(12)	5.063(4)			5.462(12)	3.808(14)	
	Ventilation	5.541(14)	5.000(6)			5.558(7)	3.788(15)	
	Insulation	5.604(11)	4.712(12)			5.538(8)	3.692(20)	O
	Soundproofing	5.505(15)	4.378(19)	O		5.269(16)	3.462(23)	O
	Mean	5.284	4.700			5.221	3.699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Pedestrian Environment	5.865(2)	4.739(11)			5.519(10)	3.673(22)	O
	Separ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5.919(1)	4.541(15)			5.519(11)	3.404(24)	O
	Natural Environment	5.784(4)	4.829(9)			5.519(9)	3.750(18)	O
	Playground	5.775(6)	4.640(13)			5.673(4)	3.962(10)	
	Parking Lot	5.613(10)	4.495(16)			5.423(14)	3.885(12)	
	Store	5.054(22)	4.099(21)		O	4.827(23)	3.981(9)	
	Community Facilities	5.342(19)	3.910(23)		O	4.865(22)	3.788(7)	O
	Program for Community	5.207(20)	3.829(24)		O	4.942(21)	3.788(16)	O
	Childcare Facilities	5.784(5)	3.991(22)	O		5.654(5)	4.058(8)	
	Mean	5.594	4.341			5.327	3.810	
Location Characteristics (Accessibility)	Hospital	5.730(8)	5.072(3)			5.596(6)	4.865(3)	
	Workplace	5.369(18)	4.486(17)		O	5.038(18)	4.365(6)	O
	Public Transportation	5.766(7)	5.369(2)			5.788(2)	4.962(2)	
	Park	5.820(3)	5.396(1)			5.923(1)	5.192(1)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5.477(16)	5.018(5)			5.423(13)	4.615(4)	
	Cultural Center	5.432(17)	4.973(7)			5.096(17)	4.327(7)	O
	Children's Library	5.568(13)	4.793(10)	O		5.404(15)	4.404(5)	O
	Plaza for Infants and Toddlers	5.081(21)	4.333(20)		O	5.000(19)	3.962(11)	O
Unwanted Facilities	5.685(9)	4.874(8)	O		5.692(3)	3.846(13)	O	
Mean	5.548	4.924			5.440	4.504		
Total Mean	5.475	4.655			5.329	4.004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모두 기피시설과의 이격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보다 다가구·다세대 지역에서 술집, 유흥업소 등과 같은 기피시설과의 분리과 관리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단지형태로 입지하는 아파트에 비해 기피시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주택특성 항목 중 방음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동일 건물 내 층간 소음 뿐 아니라 주변 주택과 주변 지역의 소음 역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의 IPA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은 커뮤니티 시설 내 민간어린이집과 주거동 1층의 가정어린이

집이 대부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수준 제고가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어린이 도서관 추가적인 설치나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IPA 결과,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를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 시 단열과 방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서는 보행안전을 위한 보차분리와 편리한 보행환경, 식재 및 녹지 등 자연환경요소에 대한 중점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는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특성 비교를 위해 공간적 범위를 한 개의 자치구로 설정한 것이다. 송파구의 영유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물리적 환경의 수준이 다른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Cheon, H. S. (2012). Policy Strategies for Housing Suppor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Planning and Policy*, 33(6), 22-30.
2. Hong, S. A., & Lee, J. Y. (2011a).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s of Child Friendly C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2), 53-70.
3. Hong, S. A., & Lee, J. Y. (2011b).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149-172.
4. Kim, A. R., Koo, J. H., & Lee, J. L. (2013).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Elderly Residents on the Planned Elements of the Participator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 Focused on the Project of Yonnam-dong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6), 103-110.
5. Kim, J. E. (1999). A Study on the Parents' Childrearing Environment in Jungwon Province. *The Choong-Won Review of Humanities*, 19, 161-172.
6. Kim, T. H. (1998). The Effects of Fertility and Strong Son Preference on Korean Society - On the basis of the changes of age and sex structure -.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6(2), 1-23.
7. Koo, J. H., Lee, J. L., & Kim, J. H. (2013). An evaluation of quality of service for community bicycle road according to road types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Seoul city research*, 14(3), 81-94.
8. Kwon, M. R., & Kim, S. W. (2012). A Study on Parents' Awareness of the Childcare Environment -Focusing on Busan-.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114-161.
9. UNICEF (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UNICEF Innocenti Center: Florence.
10. Lee, J. L., & Koo, J. H. (2013). Development of the Indicator Sets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and It's Application: Focused on Physic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3), 385-412.
11. Lee, S. S. et al.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2. OECD (2012). OECD Family Database. Paris: OECD.
13. Yoo, I. C., Kang, B. S., & Park, J. Y. (2014). An Analysis of Satisfaction Related to Preschool Children's Care Reaning Environment by Housing Typ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0(6), 31-38.
14. Seoul Statistics: <http://stat.seoul.go.kr>

Received: February 13, 2015

Revised: April 19, 2015

Accepted: May 6, 2015